국토연구 제98권(2018.9): pp87~98 http://dx.doi.org/10.15793/kspr.2018.98..005

입지특성분석을 통한 중국 서비스기업의 대(對)한국 직접투자의 요인에 관한 연구*

Why Do Chinese Service Firms Come to Korea?

송인혁 Song Inhyeok**, 왕붕 Wang Peng***, 강명구 Kang Myounggu****

Abstract

Nowadays the Chinese FDI into Korea has been rapidly increasing since 2009 and the investment of 1.77 billion dollar in 2015 ranked second after United States. Existing literature identified the four main motives for FDI, efficiency-seeking, resource-seeking, knowledge-seeking and market-seeking. Yet, it is limited in explaining the Chinese FDI into Korea. Where wage is high, resource is limited and market is relatively small. This study examined why Chinese FDI comes to Korea with panel data. By the number of firms, almost 80% of Chinese FDI in Korea is non-business service industry, such as wholesale, retail, logistics, food, accommodation, etc. Chinese FDIs in Korea increased as Chinese people in Korea increased. The cross-sectional time-series FGLS regression analysis confirms that areas with many Chinese people in Korea induce Chinese FDIs. Chinese FDI firms are more competitive in language and culture in the business with Chinese people in Korea than Korean firms. Up until today, the Chinese FDI in Korea simply follows a new market of Chinese people in Korea and doesn't show strong economic interactions with Korean economy.

Keywords: Chinese Firms, FDI, Locational Pattern, Panel Data, Cross-sectional Time-series FGLS Regression

I. 서론

해외직접투자(FDI)는 고용창출, 선진기술 도입, 국가 경쟁력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수출의 20%, 고용의 6%를 차지하며,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최혜린, 한민수, 황운중, 김수빈 2015).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FDI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FDI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대(對)한국 직접투자금액은 2015년에는 총 17.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당해 한국에 신고된 총 FDI 금액의 10.7%를 넘는 규모이고, 업체수로는 23.1%에 달한다. 특히 중국 FDI는 서비스업이 금액 기준으로 65%, 업체수 기준으로는 88%에 이르러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높게 차

* 이 논문은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제1저자) | Master's Degree of Dept. of Urban Planning, Univ. of Seoul | Primary Author | inhyeog@naver.com

*** 강소대학교 토목공학 및 역학과 조교수 | Assistant Prof., Dept. of Civil Engineering and Mechanics, Jiangsu Univ. | uoswp@naver.com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교신저자) | Prof., Dept. of Urban Planning, Univ. of Seoul | Corresponding Author | mk@uos.ac.kr

www.kci.go.kr

지하고 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FDI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중국 FDI의 특성과 동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대(對)한국 직접투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직접투자의 유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기존의 몇몇 대(對)한국 중국 직접투자 연구에서는 소수의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해 연구를 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중국의 대(對)한국 FDI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FDI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을 이용하여 중국 서비스기업의 FDI 동기를 분석하였다. 계량분석에는 '외국인투자기업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별, 8개 연도, 총 2,771개의 중국 기업 자료가 사용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에 투자하는 중국 FDI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기업들의 한국 진출 동기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FDI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고찰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동기는 크게 다음 4가지로 분류된다. 저렴한 생산비를 활용하기 위한 비용절감지향형(Efficiency-seeking) 동기, 에너지·천연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 자원에 접근하는 자원지향형(Resource-seeking) 동기, 선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기술지향형(Knowledge-seeking) 동기, 새로운 시장을 개척 및 확보하기 위한 시장지향형(Market-seeking) 동기로 나눌 수 있다(Dunning 1993; 김상지, 박연진, 송재용, 이제호 2015).

자원지향형 FDI는 원자재 확보를 위해 저개발국으로 투자하는 FDI이며, 가장 전통적인 형식의 다국적 기업의 발생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시장지향형 FDI는 특정국가 시장의 소비자 기호나 품질요건에 맞추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비용절감지향형 FDI는 OEM 등과 같은 아웃소싱 형태가 대표적이며, 환율의 변동성 또는 현지 시장의 개방 정도, 세금 정책 등에 따라 현지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 우위에 있을 때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기술지향형 FDI는 무형자산, 지식자산, 기업문화 등의 선진기술을 활용하고자 할 때 일어나는 직접투자이다.

이용환, 윤홍근(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 투자하는 FDI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시장규모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높은 임금수준과 높은 이자율은 FDI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무역개방도는 한국으로 FDI가 진입하는 데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한국에 유입되는 미국과 일본의 FDI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김봉희, 김성기, 강한균(2013)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기업은 일본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지향적인 성격이 강하며, 일본기업은 시장지향의 성격과 제조업 중심의 노동집약성격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내 작업의 형태는 다르나 궁극적으로는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이다. 일본기업은 제조업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였다.

한국이 베트남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동기는 낮은 임금에 따른 비용절감의 성격이 가장 컸다. 한국기업은 저임금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산업기반이 양호한 베트남의 남부지역으로 활발하게 진출하였고, 최근 남부지역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생산비용이 저렴한 북부지역으로 진출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왕붕, 박준호, 강명구 2015). 한국기업이 중국 상하이 지

www.kci.go.kr

역에 진출하는 경우도 이와 비슷하여, 인건비, 물류비 등의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한 비용절감 동기가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준호, 왕붕, 강명구 2016).

반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갖는다. 장정재, 김윤경(2014)은 중국의 해외투자 주요 동기가 크게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는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국으로의 투자이고 다른 하나는 자원 확보를 위한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으로의 투자이다. 저렴한 노동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에 진출한 중국의 제조기업의 경우는 선진국 진출 시 동기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이대식(2016)은 한국에 투자를 진행하였거나 투자의향을 체결한 IT/전자부품소재, 장비제조, 신재생에너지, 철강, 화공, 자동차, 교통운수업 분야 15개 기업을 선정하고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투자동기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대(對)한국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는 기술추구형, 시장추구형, 부동산개발형, FTA 활용형이다. 한국은 생산공법, 기술수준, 생산품질, 인력수준 등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대(對)한국 해외직접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업체수 기준으로 10% 미만이며, 88%는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기존의 연구는 중국 서비스기업의 대(對)한국 직접투자 이유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추가적으로, 중국기업이 대(對)한국 직접투자에 있어서 기존의 이론에서 주로 거론되는 자원 또는 저렴한 비용이 동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기업의 대(對)한국 직접투자 동기에 대하여 기존의 이론에서 제시하지 못한 동기가 있을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생겼다.

Table 1_ Literature Summary

Research	Data	FDI Motives and Characteristic
Dunning(1980)	-	Resource-seeking, Market-seeking, Efficiency-seeking
Kim(2008)	FDI of USA, Japan, China in Korea	Resource-seeking, Market-seeking, Efficiency-seeking, Knowledge-seeking, Political Stability, following Leading Firms, following Customers
Wang, Park and Kang(2015)	Korean FDI Firms in Vietnam	Efficiency-seeking, Market-seeking
Park, Wang and Kang(2016)	Korean FDI Firms in Shanghai	Efficiency-seeking, Market-seeking
Moon(2007)	Korean FDI Firms	Resource-seeking, Efficiency-seeking, Knowledge-seeking, Export Promotion, Access to Raw Materials
Lee and Yoon(2008)	FDI in Korea	Market Size(+), Wage(-), Interest(+)
Kim, Kim and Kang(2013)	FDI of USA, Japan in Korea	Market-seeking, Efficiency-seeking
Hyun(2000)	Korean Manufacturing FDI in Europe	Market-seeking, Efficiency-seeking, Knowledge-seeking
Seo(2004)	Automotive Industry FDI in USA	Market-seeking, Knowledge-seeking, Easing of Trade with USA
Ra(2012)	Indian FDI	Market-seeking, Knowledge-seeking
Jang and Kim(2014)	Chinese FDI	Knowledge-seeking, Resource-seeking, Efficiency-seeking
Back and Seo(2006)	Chinese FDI	Market-seeking, Knowledge-seeking
Lee(2016)	Chinese FDI in Korea	Market-seeking, Knowledge-seeking, Real Estate Development, Utilizing FTA

www.kci.go.kr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고려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독점적 우위(Ownership Specific Advantages), 내부화의 우위(Internalization Specific Advantages), 그리고 입지적 우위(Location Specific Advantages)를 꼽는다(Dunning 1980).

독점적 우위는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투자대상국의 경쟁기업들보다 기술이나 자산 등이 유리한 조건을 갖는 경우이다.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의사소통 문제, 정보 부족, 불리한 제도 등의 외국인비용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독점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을 때, 기업은 해외에 투자를 진행한다. 즉, 우수한 품질의 첨단제품이나 의약품 같은 독점적 우위는 진출하는 국가의 시장에서 독점적 우위를 가짐으로써 시장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점적 우위를 확보한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중에는 수출이나 라이선싱도 있다. 이러한 방식보다 직접투자를 하는 것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내부화의 우위가 있을 때이다. 내부화를 통하여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수출이나 라이선싱과 달리, 수입쿼터제, 관세, 조세차별 등 진출국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모기업으로부터 자원배분과 유통 등의 거래를 함으로써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기업의 독점적 우위도 보전할 수 있다. 독점적 우위가 있고 내부화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중국기업의 한국 진출은, 뒤의 분석에서 보겠지만, 한국 내 중국인의 진출과 긴밀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측면을 볼 때, 한국 내 중국인 소비자에 대한 의사소통, 언어, 문화, 소비자 특성에 대한 이해 측면의 우위가 있을 수 있고 내부화의 경쟁력이 있다는 가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어느 한 기업이 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진출하는 현지국가의 국민이 고객이 되고 이는 소비시장의 확장을 위한 진출이다. 한국 소매업이 베트남에 진출한다면 그 소매업의 주요 고객은 현지의 베트남 국민이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 베트남 현지 소매업은 문화와 언어에서 외국기업보다 우위를 갖고 반대로 외국기업은 열위를 갖게 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겠지만, 한국에 진출하는 많은 중국 도소매업 기업들이 주요 고객을 한국인이 아닌 '한국에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중국기업이 오히려 문화 및 언어적 우위를 갖고 한국 현지기업이 열위를 갖게 된다. 공간적으로는 한국이라 할지라도 '중국인 관광객, 체류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삼는 경제활동에서는 한국 내 중국기업이 현지기업(한국기업)에 비하여 문화와 언어 측면에서 우위를 가질 수도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밝히듯이 독점적 우위를 제공하여 직접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서비스기업의 이러한 우위, 즉 한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문화 및 언어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진출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할 것이다.

III. 분석결과

1. 자료 및 현황

현황분석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외국인투자통계' 중 2016년까지 유입된 6,997개의 중국 FDI 기업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KSIC 분류에 따라 산업이 분류되어 있으며, 연도에 따라 신고된 기업의 국가별 개수와 도착금액이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입지 정보 등 자세한 정보가 없지만 모든 기업을 포괄하고 있어 현황을 개괄하는 데 사용하였다.

www.kci.go.kr

Table 2_ Accumulated FDI by Industry(2017)

Industry	All Country				China			
	No. of Firms	Ratio(%)	B$	Ratio(%)	No. of Firms	Ratio(%)	B$	Ratio(%)
Agriculture, Fisheries, Mining	281	1	.6	0	89	1	0.0	0
Manufacturing	14,246	29	86.3	42	693	9	2.0	34
Electricity, Gas, Water, Construction	702	70	4.3	2	92	1	0.0	0
Services	34,662	1	112.8	55	6,616	88	3.9	65
Total	49,831	100	204.0	100	7,484	100	6	100

Sourc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8.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국가의 누적 FDI 도착금액은 2,040억 달러이며, 업체수는 50만 개에 이른다. 산업별 비중을 보면, 도착금액 기준으로 제조업이 42%, 서비스업이 55%이며, 업체수 기준으로는 제조업 29%, 서비스업 70%이다(<Table 2> 참조).

이 중 중국 FDI의 도착금액은 60억 달러이며, 업체수는 7,484개다. 산업별 비중을 보면, 도착금액 기준으로 제조업이 34%, 서비스업이 65%이며, 업체수 기준으로는 제조업 9%, 서비스업 88%이다. 중국기업의 FDI는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중국기업의 입지패턴을 보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정보'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각 기업의 이름, 주소, 표준산업분류, 최초등록일, 대표업종 등이 포함된다. 입지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전체 중국 FDI 기업의 약 40% 정도이나 그 산업별 분포는 전체자료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Table 3> 참조). 본 논문의 정량분석은 이 2,771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중국 직접투자의 공간적 분포를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Figure 1>과 같다. 서울과 수도권 그 다음에 주요 대도시 중심으로 입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진출할 때는 주로 비용이 저렴한 주변부에 입지하던 패턴과는 매우 다른 모습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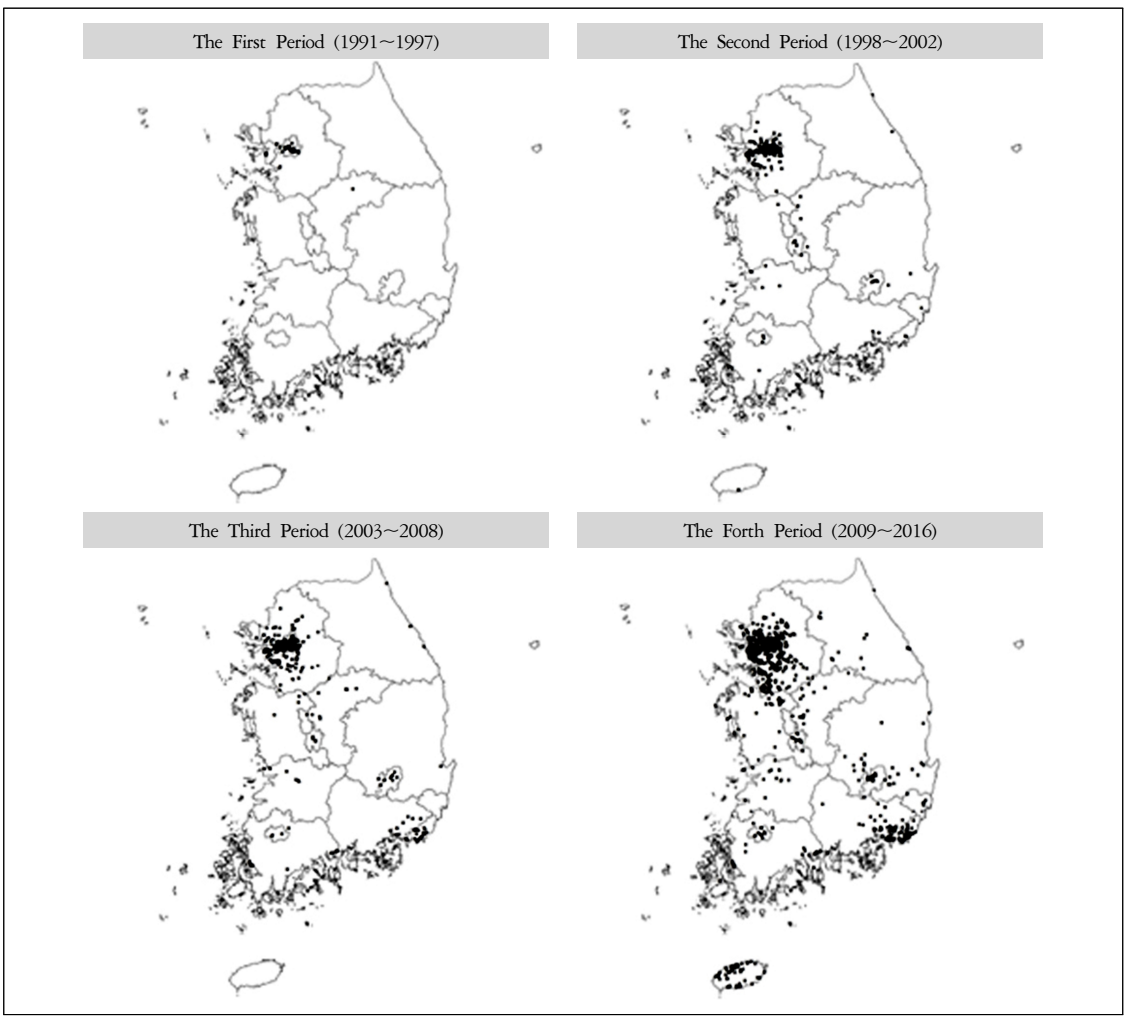
Table 3_ Chinese FDI by Industry(Two Data Sources, 2016)

Industry	Foreign Investment Statistics		Foreign Investment Firms Information	
	No. of Firms	Ratio(%)	No. of Firms	Ratio(%)
Agriculture, Fisheries, Mining	73	1.0	37	1.3
Manufacturing	636	9.1	287	10.4
Electricity, Gas, Water, Construction	62	0.9	25	0.9
Services	6,239	89.0	2,422	87.4
Wholesale and Retail·Logistics	5,013	71.5	1,743	62.9
Food and Accommodation	648	9.2	361	13.0
Business Services	208	3.0	123	4.4
Property for Rent	180	2.6	103	3.7
Other Services	190	2.7	92	3.3
Total	7,010	100	2,771	100

Sourc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7.

www.kci.go.kr

Figure 1 _ Location of Chinese FDI Firms in Korea



Sourc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7.

2. 패널자료 분석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15개의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자료구득의 한계와 패널자료에 비하여 너무 많은 변수를 사용할 수 없어, 정량분석에서는 4개의 대표적인 변수를 사용하였다.[1] 또한 변수들의 과거 8년간 체계적인 패널자료의 구득이 가능한 시·도단위를 분석단위로 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 보았듯이, 외국인투자(특히 서비스업)의 가장 큰 요인은 비용절감을 위한 저비용 지역의 선택이므로, 각 시도별 임금 수준을 변수로 선택하였다. 또 다른 요인으로 수출가공 목적의 FDI를

1) 자료의 제약으로 이상적인 모델은 적용할 수 없어, 공선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독립변수들을 상관분석을 통해 1차적으로 제거하였고, 주성분분석을 통해 2차적으로 확인하였음.

www.kci.go.kr

Table 4 _ Variables

Category	Variable	Unit	Source
Dependent Variable	Chinese Service Firms in Korea (2008-2015)	ea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dependent Variable	Wage Level	₩	KOSIS
	Road Penetration Rate	km/√㎢ /a person	www.index.go.kr
	Foreign Tourists	person	KOSIS
	Export Amount	thousand $	KOSIS

Table 5 _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Chinese Svc Firms	120	11.25	25.05498	0	159
ln(wage)	120	14.71692	0.110728	14.48664	14.99772
ln(roadrate)	120	0.645308	0.219521	0.139762	1.205971
ln(visitor)	120	12.79003	1.671552	9.46382	16.46886
ln(export)	120	16.80526	1.164479	13.92899	18.5308

검증하기 위하여 수출액을 선택하였다. 지역의 기초적인 기반시설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교통의 기본이 되는 도로율을 포함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의 주요 가설인 한국 내 중국인, 특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의 증가를 검증하고자 외국인관광객 변수를 포함하였다.

분석은 2가지 과정으로 진행하였는데, 첫째로 robust 옵션과 연도 더미를 포함한 통합OLS를 시행하였다. 시계열이 짧은 한계점이 있고, 각 변수들의 시계열적 자기상관이 없으므로 통합OLS도 탐색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에 이를 사용하여 1차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관계를 확인하였고 다중공선성도 확인하였다. 둘째로 횡단면 시계열 일반선형회귀(Cross-sectional time-series FGLS regression)를 시행하였다. panel 자료의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모델을 분석하였다.

Table 6 _ ADF Test

	Unadjusted t	Adjusted t	p-value
service	-7.9657	-3.4209	0.0003
ln(wage)	-13.9807	-14.6422	0.0000
ln(roadrate)	-26.6634	-27.4383	0.0000
ln(visitor)	-5.1127	-4.6806	0.0000
ln(export)	-27.5166	-28.3306	0.0000

통합OLS를 분석하기 전에 본 자료가 시계열 속성을 가지므로, 먼저 단위근 검정을 하였다. 단위근 검정 방식 중 널리 사용되는 LLC(Levin-Lin-Chu) 검정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패널평균과 추세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와 패널평균만을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패널평균과 추세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를 동시에 검정하였다. 이때, 시차는 AIC 값이 최소가 되는 시차로 설정하였다. 검정 결과, 대부분의 자료는 단위근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강건한 통합OLS 모형의 결과, 방문객수, 수출액, 도로율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였고, 임금 또한 정(+)의 방향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중국 서비스기업들은 임금이 낮은 곳에 입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표준화계수에서 볼 수 있듯이 방문객수가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참조).

통합OLS 모형에서 설명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계수)를 점검하였으며, 이는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검정 결과, 모든 설명 변수의 VIF 및 평균 VIF가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횡단면 시계열 일반선형회귀 결과, 우선 임금은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중국 서비스기업은 임금이 오히려 높은 곳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저비용의 효율성을 추

www.kci.go.kr

Table 7_ Pooled OLS

Service	Coef.	Robust Std. Err.	t	P>|t|	Beta
lwage	52.31429	29.48097	1.77	0.079	0.2311979
lroadrate	26.6633	13.2038	2.02	0.046	0.2336125
lvisitor	6.209948	1.440236	4.31	0.000	0.4142989
lexport	4.728263	1.521458	3.11	0.002	0.2197552
year					
2009	3.428058	6.190962	0.55	0.581	0.0454392
2010	4.403466	7.773149	0.57	0.572	0.0583683
2011	-6.531017	5.921769	-1.10	0.273	-0.0865691
2012	-7.758873	6.799733	-1.14	0.256	-0.1028444
2013	-8.711786	7.485034	-1.16	0.247	-0.1154753
2014	-7.342695	8.206439	-0.89	0.373	-0.097328
2015	-4.079178	10.35024	-0.39	0.694	-0.0540698
_cons	-931.4226	409.8131	-2.27	0.025	

Note: Number of obs=120, F(11, 108)=4.23, Prob>F=0.0000, R-squared=0.4798

Table 8_ Multicollinearity Test

Variable	VIF	1/VIF
lwage	6.23	0.160567
lroadrate	1.42	0.405506
lvisitor	1.39	0.720200
lexport	2.21	0.452816
year		
2009	1.80	0.556355
2010	2.04	0.491147
2011	2.30	0.434505
2012	2.91	0.343191
2013	3.46	0.288902
2014	3.91	0.255842
2015	4.67	0.214241
Mean VIF	2.94	

구하는 해외직접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율도 중국 서비스기업에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비표준화계수로는 가장 큰 계수를 갖는데, 도로율이 1% 높아지면 중국 서비스기업이 25개 많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액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인 관광객과의 연관성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본 논문에서 제기한 타국의 자국민 증가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확대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외국에서 들어오는 FDI는 한국의 경제에 있어 일자리의 창출, 지식의 습득, 생산과 수출의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국은 FDI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취·등록세 등의 조세 감면이나 용지매입비 지원, 임대료 감면 등 입지 지원, 나아가 현금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www.kci.go.kr

Table 9_ Cross-sectional time-series FGLS regression

Coefficients: generalized least squares
Panels: heteroskedastic with cross-sectional correlation
Correlation: no autocorrelation

Estimated covariances	=	120	Number of obs	=	120
Estimated autocorrelations	=	0	Number of groups	=	15
Estimated coefficients	=	5	Time periods	=	8
			Wald chi2(4)	=	163.35
			Prob > chi2	=	0.0000

Service	Cod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lwage	14.58231	5.679147	2.57	0.010	3.451388	25.71323
lroadrate	25.22337	4.363543	5.78	0.000	16.67099	33.77576
lexport	4.85074	0.6544451	7.41	0.000	3.568051	6.133429
lvisitor	5.715828	0.4594114	12.44	0.000	4.815398	6.616257
_cons	-376.3064	81.90718	-4.59	0.000	-536.8415	-215.7713

이루기 위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FDI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제고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의 FDI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도소매유통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중국 직접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기업의 대(對)한국 직접투자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으로 89%에 이르며, 특히 도소매·물류 분야에 전체 FDI의 71.5%가 편중되어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의 FDI가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점과 차이가 있으며, 중국의 FDI는 한국 내 선진기술 전파 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국의 FDI 입지 특성으로 볼 때, 임금수준이 오히려 높은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중국 FDI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셋째, 패널자료 분석 결과 중국 FDI는 한국 내 중국인 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유의수준 5% 내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되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한국으로 투자하는 FDI의 경우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이는 기존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한국 내에서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전수 등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다(김홍기 2005; 남광회, 윤성호 2005; 김준동, 강준구, 김혁황, 김민성 외 2009; 최혜린, 한민수, 황운중, 김수빈 2015; 이승래, 강준구, 김혁황, 박지현 외 2015).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중국 FDI가 이와는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한국은 FDI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FDI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더불어 FDI의 특성을 고려하는, 즉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유발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FDI 유치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기존의 정성적 연구 또는 몇몇 기업의 설문을 근거로 한 대(對)한국 중국 직접투자 연구의

www.kci.go.kr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전체를 조망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과거 수년간의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어, 분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시·도 간에서 설명되기보다는, 시·도 내 하위 공간단위에서 설명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 미세한 시군구 수준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독립변수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시·도 내 하위 공간단위에서 세밀하게 분석해 보아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앞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김봉희, 김성기, 강한균. 2013. 대 한국 미·일 직접투자의 특성 변화. 경영연구 28권, 4호: 225-246.
   Kim Bonghee, Kim Seongki and Kang Hangyoun. 2013. Changing characteristics of American and Japanese FDI in Korea.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8, no.4: 225-246.
2. 김상지, 박연진, 송재용, 이제호. 2015. 역량과 불확실성이 지식추구형 해외직접투자 시기에 미치는 영향. 전략경영연구 18권, 3호: 25-49.
   Kim Sangji, Park Yeonjin, Song Jaeyong and Lee Jeho. 2015. The impact of capabilities and uncertainties on the timing of knowledge-seeking foreign direct investments. *Journal of Strategic Management* 18, no.3; 25-49.
3. 김오비. 2008. 우리나라의 FDI 유출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미국,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Kim Obie. 2008.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Korean FDI Flows: Focusing on USA, Japan and China*. Ph.D. diss., Paichai University.
4. 김준동, 강준구, 김혁황, 김민성, 이성봉. 2009.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m Junedong, Kang Jungu, Kim Hyukhwang, Kim Minsung and Lee Sungbong. 2009. *Economic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and Some Proposals on Improving the Investment Environment*. Seoul: Korea I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5. 김홍기. 2005. 외국인 직접투자의 기술혁신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비안정적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Kim Hongkee. 2005. *An Empirical Research on Relation between FDI and Technology Innovation: Using nonstationary panel data*. Seou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6. 나원찬. 2012. 최근 인도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결정요인 분석. 남아시아연구 17권, 3호: 45-77.
   Ra Wonchan. 2012.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India: Recent trends, government policies and theoretical explanation. *Journal of South Asian Studies* 17, no.3: 45-47.
7. 남광희, 윤성호. 2005. 우리나라 FDI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Nam Kwangho and Yoon Sungho. 2005. *Korea FDI Policy: Problems and Solutions*. Seoul: The Bank of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8. 문휘창. 2007.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영리뷰 11권, 1호: 115-139.
   Moon Hwychang. 2007. The effects of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Korean firms and economy: A comprehensive approach of integrating diverse motivations of investment.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1, no.1: 115-139.
9. 박준호, 왕붕, 강명구. 2016. 대(對)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입지결정 요인의 변화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권, 1호: 193-218.
   Park Junho, Wang Peng and Kang Myounggu. 2016.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change and characteristic of location choice determinants by Korean firms in China: Focused on Shanghai.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8, no.1: 193-218.
10. 백권호, 서석흥. 2006. 중국기업 해외직접투자('走出去')의 현황과 평가. 중국학연구 35권: 283-307.
    Paik Gwonho and Seo Seokheung. 2006.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Chinese Firms and It's Prospects. *Journal of The Society Of Chinese Studies* 35: 283-307.
11. 산업통상자원부. 2016-2018.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6-2018. *Yearbook*

www.kci.go.kr

of Regional Energy Statistics. Sejong: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12. _____. 2017. 외국인투자기업정보. http://www.motie.go.kr/motie/py/sa/companyGuide/companyguide.jsp (2017년 7월 20일 검색).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7. Foreign investment firms information. http://www.motie.go.kr/motie/py/sa/companyGuide/companyguide.jsp (accessed July 20, 2017).
13. _____. 2018.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2018년 4월 11일 검색).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8. Foreign investment statistics.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accessed April 11, 2018).
14. 서정욱. 2004.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미국투자 입지동기 분석: 현대자동차 미 앨라배마 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권, 1호: 65-81.
Suh Jeongwook. 2004. An analysis of the locational motives for the Korean auto industry's investment in the U.S.: Case study of 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7, no.1: 65-81.
15. 왕붕, 박준호, 강명구. 2015.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입지결정요인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권, 4호: 105-126.
Wang Peng, Park Junho and Kang Myounggu. 2015. A study on the change of Korean firms' location choice in Vietnam.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7, no.4; 105-126.
16. 이대식. 2016. 대(對)한국 중국투자기업의 투자 유형 분석: 기업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경제연구 14권, 1호: 51-68.
Lee Daeshik. 2016. Categorizing analysis of Chines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Korea through firm level case study.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Economics* 14, no.1: 51-68.
17. 이승래, 강준구, 김혁황, 박지현, 이준원, 이주미. 2015.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Lee Seungrae, Kang Jungu, Kim Hyukhwang, Park Jihyun, Lee Junwon and Lee Jumi. 2015. *The Determinants of Greenfield and M&A Foreign Direct Investment*. Sejong: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8. 이용환, 윤홍근. 2008. 한국,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FDI 유입현황 및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로고스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303-322.
Lee Yonghwan and Yoon Hongun. 2008. FDI of Korea, China, United States, and Japan. *Proceedings of the 6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303-322.
19. 장정재, 김윤경. 2014.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과 투자유치 확대 방안: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32권: 223-246.
Zhang Junjae and Kim Yunkyeong. 2014. Study on the trend of Chinese foreign investment and attracting its more extended investment: Focusing on Busan Metropolitan City. *Korean-Chinese Social Science Studies* 32: 223-246.
20. 최혜린, 한민수, 황운중, 김수빈. 2015.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Choi Hyelin, Han Minsoo, Whang Unjung and Kim Subin. 2015. *Differential Effects of FDI on the SMEs and Wage Premium for Skilled Labor*. Sejon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1. 현승용. 2000. 한국 제조업의 대유럽 직접투자 정책. 한독사회과학논총 10권, 1호: 257-286.
Hyun Seungyong. 2000. A study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FDI practices in the European countries.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10, no.1: 257-286.
22. Dunning, J. H. 1980. Toward an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Some empirical tes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1, no.1: 9-31.
23. Dunning, J. H. 1993. Trad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A search for an eclectic approach. In *The Theor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183-218. London: Routledge.

• 논문 접수일: 2018. 5. 14.
• 심사 시작일: 2018. 6. 27.
• 심사 완료일: 2018. 9. 12.

www.kci.go.kr

요약

주제어: 해외직접투자, 중국기업, 입지패턴, 패널분석

최근 한국에 입지하는 중국 FDI는 2009년 이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17.7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FDI의 주요 요인으로 4가지를 — 비용절감 지향형, 자원 지향형, 기술 지향형, 시장 지향형 — 제시하는데, 이는 주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FDI를 대상으로 한 설명이다. 하지만 비용이 더 비싼 한국으로 진입하는 중국 FDI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황분석을 통해 한국 내 중국기업은 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으로 진출하는 중국 FDI에 한국 내 중국인 규모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중국기업이 오히려 한국기업보다 언어와 문화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한국이 과거 해외직접투자의 양적 팽창에 초점을 둔 정책을 가져왔다면, 향후에는 질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www.kci.go.kr